산업통상자원부 **보 도 자 료**

2016년 9월 16일(금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(인터넷, 방송, 통신은 9.15(목) 오전 11시 이후 보도 가능)

배포 일시	2016. 9. 16(금)	담당 부서	석유산업과
담당 과장	박재영 과장(044-203-5220)	담 당 자	김은하 사무관 (044-203-5226)

우태희 2차관, 송유관 시설 안전점검

- 송유관 시설의 철저한 관리와 신속한 대응체계 주문 -

□ 산업통상자원부 우태희 제2차관은 9월 15일(목), 경주 지진, 북한 핵실험 등 최근 에너지 기반시설의 사이버 안보 위협 및 자연재해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, 대한송유관공사를 찾아 송유관 시설의 안전관리 실태와 지진대책을 점검하였다.

○ 우태희 차관은 송유관공사(한문기 대표이사)로부터 송유관 시설 현황과 안전관리 실태에 관해 보고를 받고, 안전대책, 지진대책 및 비상시 긴급대응 방안 을 논의하였다.

○ 또한 중앙통제실 시스템, 저유시설, 석유제품 입출하대 등 현장을 점검하고 주요 시설물의 안전 관리 여부도 확인하였다.

□ 우태희 차관은 "국내 석유제품의 절반 이상을 운송하는 송유관 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안전·보안 관리와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·운영이 매우 중요하다"며 철저한 시설관리와 선제적 대응을 강조하였다.

○ 아울러 비상상황 발생시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송유시설 안전 인프라 보강, 도유 근절, 주요 시설물 관리, 관계기관과의 협업체계 및 신속한 대응 체계 유지 등도 적극 수행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.

○ 특히, 9.12 경주 지진 이후 전국 송유관의 운영실태, 송유관의 내진설계, 지진 발생시 송유자동정지시스템의 작동상태 등을 집중 점검하였다.

○ 대한송유관공사는 전국의 모든 송유관은 지진규모 7.4에서 7.9까지 견딜 수 있도록 내진설계가 완료되어 있다고 설명하였다.

○ 이에 대해 우차관은 송유관 내부직접검사(in-line inspection) 설비를 이용하여 송유관 내부의 균열이나 부식 여부를 점검하도록 하였고, 향후 발생가능한 지진에 대비하여 누유감시시스템(LDS: Leak Detection System)에 의한 상시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을 주문하였다.

<대한송유관공사 현황>

- (설립) 1990. 1
- (조직) 본사 및 6개 지사(서울·경인·충청·대전·호남·영남)로 구성
- (주요사업) 5개 정유공장과 전국대도시 및 공항을 연결하는 송유관 건설·운영, 총 연장 1,187km 송유관으로 국내 경질유(휘·등·경·항공유) 총 사용량의 56.5% 수송 분담

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이 보도자료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석유산업과 김은하 사무관(044-203-5226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최미화 / 홍보담당관 / 2016-09-19 09:54:31